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록 제88호 [매체]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5년 12월 1일 발행인 : 장민기 인건개발연구원(KHDI)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경양체육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 디자인코드 www.cod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92 5323

세계화, 글로벌시대 무한한 잠재력 활용을 위한 한민족네트워크 실현

머릿글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 김진홍
12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주한 러시아 대사 클레브 이바첸초프
커버스토리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광규

세상을 보는 눈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 이의용
지자체특강 성공회대학교 교수 오숙희

발행인편지

2005 연구원 이모저모

회원&연구원소식 / LMI & YOU

리더십이야기 / 조순칼럼

표지인물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사진 오경근 원장

2005 December

12

신용사회로 통하는
성공으로 함께 가는 길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밝은 내일을 이루어 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와 함께 장기저리의 서울시 정책자금을 One-Stop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를 참조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의 만족을 창출하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나
타낸 심벌은 성공으로 가는 바른 길을 의미하며,
신뢰와 투명하고 건강한 신용사회를 지향합니다.



국제봉사에서 얻는 것들

김진홍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

올해에도 어김없이 나는 대학생들과 해외봉사를 다녀왔다. 최북단 북동부 시베리아에 위치한 러시아 사하자치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인터넷교육봉사단의 일원으로 해외봉사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해외봉사 과정에서 지난 8년간 해외 민간문화원운동을 펼쳐온 아시아문화교류재단(ACEF) 이사장의 자격으로 야쿠츠크대학교 총장과 '한국문화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까지 교환하는 수확을 얻기도 하였다. 뜻밖의 큰 수확이었다.

ACEF가 야쿠츠크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지난 97년부터 PAS청년봉사단 단장으로 서 세 차례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이곳에서 교육 및 문화봉사를 한 바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동토(凍土)의 땅' 야쿠츠크를 다시 찾곤 하였다. 내가 야쿠츠크를 자주 찾게 된 것은 PAS청년봉사단 창단에 앞장선 PAS사무총장 겸 초대 단장으로서 이곳에서 처녀봉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야쿠츠크는 나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고, 그곳 사람들은 나의 고향 사람들이 되었다. 야쿠츠크는 그들의 원주민어로 '오랑캐'이다. '오랑캐' 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나의 고향 친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해외봉사는 야쿠츠크 이외에도 러시아 이르쿠츠크, 부랴트자치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서 모두 9회에 걸쳐 해마다 이어지게 되었다. 작년부터 베트남 호치민에 설립된 ACEF 호치민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두 나라 사이의 쌍방향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펴오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야쿠츠크 한국문화원 설립에 전력을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나의 계획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이어져 나의 노후의 삶을 더욱 젊고, 윤택하게 할 것이다.

얼마 전 텔런트 김혜자씨가 월드비전 의료봉사단과 함께 파키스탄

지진 피해현장을 찾아 해외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그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지진은 하늘의 일이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사람이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제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가 박완서씨와 영화배우 안성기씨도 유니세프친선대사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아에 허덕이는 에티오피아와 티벳을 찾는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PAS(태평양아시아협회) 등 해외봉사단을 통해 세계의 오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세기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자서전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에서 문명한 세계를 떠나 아프리카 오지에서 헌신해온 그의 마지막 삶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봉사는 사랑이다"라고 외친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또 다른 저서 <나의 생애와 사상>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봉사함으로써 세계에 대하여 뜻있고 목적 있는 행동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술회한 바 있기도 하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가 뜨자 한류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혐오하는 조짐이 현지에서 일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러한 우려는 우리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기도 하다. 국제봉사는 노력봉사와 교육봉사, 문화봉사 등 세 갈래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들 봉사 가운데 노력봉사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교육봉사와 문화봉사는 그렇지 않다. 교육봉사와 문화봉사를 일방적으로 수행하려 하는 경우 뜻하지 않은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중국과 일본에서 일고 있는 '한류의 역풍(逆風)'에서 보듯 문화의 일방주의는 거부를 부르고 혐오를 낳을 수 있다. 국제봉사도 이제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해와 친선 그리고 협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봉사는 사랑'이라는 슈바이처 정신이 상호주의와 함께 뿌리내릴 때 새로운 단계의 바람직한 국제봉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人間**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12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팜 띠엔 반 주한 베트남 대사

1972년 베트남 외교부 입성 / 북한 베트남대사관 상무관 / 베트남 외교부 아주1과 사무관 / 북한 베트남대사관 제2서기관 / 베트남 외교부 아주1과 무역본부장 / 주한 베트남대사관 공사참사관 / 베트남 외무부 베트남대외위원회 문화부 본부장 / 주한 베트남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도약하는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정치리더십

1430회 12월 1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최근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블루오션 전략 중의 하나로 선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고속성장국인 데다 한국과의 교역량도 최근 3년 사이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2배가 늘었기 때문이다.

1987년부터 개방경제를 도입한 베트남은 1986년 774.7%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을 2003년에는 3%로 떨어뜨리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06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이렇듯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건전한 개혁정책과 국제적인 개방정책, 국제사회에의 순향적 통합,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강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을 쏟으면서 이를 정치개혁과 연계하는 베트남의 정치리더십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로 무디스는 지난 7월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1'에서 'Ba3'으로 상향조정했다. 물론 아직까지 투기등급 수준이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WTO 가입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팜 띠엔 반 주한 베트남 대사를 초빙하여 최근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성장 동력과 함께 베트남을 이끄는 정치리더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천 정배 법무부 장관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법학 석사 / 민변 창립회원, 상임간사, 국제인권위원장 /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 제15, 16, 17대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내수석부총무 /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대통령후보직속 정치개혁추진위원회 총괄간사 / 열린우리당 총선거획위원장, 클린선거위원장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한일의원연맹 고문 / 한영친선의원협회 회장 <상훈> 백봉기념사업회 백봉신사상(깨끗하고 청렴한 국회의원), 한국언론인연합회 올해의 정치인상 외

민생개혁정치와 시장경제

1431회 12월 8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빗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빗변을 마주하는 내각의 크기가 90도라는 직삼각형의 정의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즉, 동어반복이다.

평화로운 교환을 뜻하는 시장경제라는 말과 개인의 권리보호를 우선하는 법치주의도 마찬가지다.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미국 남부의 한 도시에서 빈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들어가 물건을 조달하는 것이 보도된 데서 알 수 있듯, 교역이 없으면 사람들은 약탈을 해서라도 물자를 조달할 것이다. 반면 공갈과 절도로부터 재산을 지켜주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대가를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자기 것을 최소한 적게 내놓을 것이다. 폭력에 대하여는 굴종이나 투쟁과 보복이 가능할 뿐 교환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 없으면 법이 불필요하고, 법이 없으면 시장이 성립할 수 없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인권과 민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법무' 지론을 갖고 있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초빙하여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및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수사와 관련해 법무장관이자 법조인으로서 그가 갖는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도 들어보기로 한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정치학 석사 / 美 켈트주립대 정치학 석사 / 美 피츠버그대 정치학 박사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학과장 / 美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 제12대 민정당 국회의원 / 대통령 정책조사보좌관,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 / 단국대 이사장 / 인천대 총장 /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초대 원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한국정치학회 회장 / 세계정치학회(IPSA) 부회장
 <상훈>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황조근정훈장, 체육훈장 거상장
 <저서> 러시아사, 소련정치론, 한국전쟁, 한국정치론, 러시아혁명사

부산 APEC을 통해 본 국제정치질서와 한국 외교의 성과와 과제
 1432회 12월 15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우리나라 최대의 외교올림픽이라고 불린 제13차 부산 APEC회의가 지난달 19일 부산선언을 채택하며 폐막되었다. 이번 APEC회의는 무엇보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앞선 IT기술을 선보이고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해 12개 외국기업과 5억 달러 이상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수확을 올렸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에 대한 의장기구성명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각국 정상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보고르 목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산 로드맵'을 통해 목표달성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DDA협상(다자간 무역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DDA협상 진전에 걸맞는 시장개방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와 APEC 반대자들을 설득할 만한 리더십의 발휘라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을 초빙하여 부산 APEC회의에서 나타난 국제정치질서를 분석해보고 한국의 외교적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송년연구회 ***

위대한 기회, 세기적 절망 - 21세기 세계와 2006년 한국의 전망
 1433회 12월 2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동아일보 기자, 논설위원, 편집부국장, 논설주간 / 동아방송 보도국장 / 서울 언론문화클럽 초대이사장 / 한국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부원장 / 신영언론연구기금 이사장 / 과학기술처 장관 / 한호재단 이사, 이사장 / 한국경제신문 회장 / 세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서울시립대 총장 / 문화일보 사장, 회장 / 한국무역협회 수석객원연구원
 <상훈> 대통령표창, 청초근정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저서> 한국주식회사,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선택, 해양21세기(공저) 외

지금 우리는 엘리트에 대한 혐오 또는 허무감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엘리트는 그 부패와 오만에 더하고 있고, 이른바 진보진영 엘리트도 반논리적, 반지성적 행태로 자멸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엘리트에 대한 권위와 정체성 상실은 최고 엘리트의 상징인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초라한 모습과 함께 최근 우리나라 최고 기업으로 꼽히는 일부 대기업들의 내외부 사건들까지 겹쳐 헤어내기 어렵게 되었다. 기존과 신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엘리트에 대한 총체적 허무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WTO 비준, 노사관계, 지역감정, 남북관계와 이념, 헌법개정문제 등 국정의 핵심문제일수록 무정부상태로 빠져들고 사회전체가 공동화, 해체화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사회에 참다운 엘리트, 권위 있는 엘리트, 신뢰할 수 있는 엘리트, 적(敵)도 존경하는 엘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더욱 더 세계적·세기적 대성공과 희생의 모범이 있는 엘리트, 권위와 신뢰 그리고 희망의 엘리트를 원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을 초빙하여 진정한 엘리트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세기적 절망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들여보고 2006년 한국사회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11월 한·러 정상회담과 한·러관계의 현재와 미래

클레브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제142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1월 3일(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최근 러시아는 연 7%의 성장률 기록 등 안정세에 접어들어

한·러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좋은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개방적이고 건설적이며 예측 가능한 파트너십을 말한다. 러시아는 바로 그러한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강력한 국가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바로 그 강력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15년간 러시아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소련 내 공화국들과의 경제관계 역시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과학기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7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이 이제 실질적인 결실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5년간 연 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매년 국민 실질소득 또한 10~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점차 안정되고 있다. 2000년 인플레이션이 36%였는데, 현재는 10~11%선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 수치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전에 36~40%라는 수치와는 분명 다른 수치이다. 한편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0월 14일을 기준으로

1,627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재정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부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주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이 고유가와 관련된 때였던 대외경제 경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근에는 상당부분의 발전이 제조업이나 가공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의 산업발전정책 방향은

제한을 제한하는 것, 규제를 규제하는 것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를 다각화하는 것이 러시아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이는 또한 러시아의 새로운 산업발전정책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전략적 접근방법이다. 현재 러시아는 2020년 또는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15년 또는 20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우선 분야가 채택되었다. 파이프라인 인프라 발전이 그 중 한 예로 말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산업발전정책 방향은 핵심 분야의 자산통합이다. 오늘날 국제

산업 및 에너지시장에서는 대규모 기업만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지금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잠식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러시아는 비중 있는 부분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그 같은 기업을 출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자산통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과 러시아 5위의 민간 석유회사인 시브네프트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는 가스프롬이 세계적 수준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가스프롬의 주식시장을 자유화하고 기업경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절대 이것이 석유가스부문의 국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민·관의 협력부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언제나 이러한 협력에 있어서는 정상적 시장관계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며, 경쟁분야에서 양측 중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가 고유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각 분야에 대한 발전의 확고한 목적을 파악하고 있다면 민간자본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위협을, 국가적 차원에서는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러한 예가 2006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항공기 제조사 연합구성이다. 이것은 또한 항공기술 시장의 자산통합의 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석유가스부문과 마찬가지로 항공산업 부문에서도 정부는 규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국제협력 가능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러시아가 부속품이나 기계 수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프로젝트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동 수행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생산의 현지화 문제이다. 특히, 생산의 현지화에 해당되는 것이 자동차 조립부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규모의 투자 없이 현재 러시아의 역량만으로는 자동차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러시아 소비자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저품질 상품이 대량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한편 오랫동안 러시아 자동차 산업에는 다른 문제들도 존재해 왔다. 그간 러시아 자동차산업을 지탱해 왔던 보호주의가 우리가 원했던 궁극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방침을 바꾸어 러시아기업이나 외국기업이나에 상관없이 러시아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호혜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조립생산에 관한 법이 채택되었다. 러시아는 국내의 모든 투자자들을 위한 최고의 호혜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조립규정을 따른다면 모든 기업들은 인화된 관세로 수입부품을 러시아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동차 조립 생산법은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규모의 확대를 궁극적으로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의 결과



로써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 수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러시아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러시아내 자동차 생산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E 원칙이다. 3E는 투자, 혁신, 통합을 의미한다. 국가적 과제로써 수직적, 수평적 측면에서 투자, 혁신, 통합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사업서비스를 출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에서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외국투자에 관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입안과정에서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대한 국가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또 한편으로 발전된 투자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각 나라가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러시아는 그러한 국제적 관행을 분석하고 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외국 투자자들과의 컨설팅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 역시 법안에 반영하였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한을 제한하는 것', 다시 말해 '규제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략적 부문에 대한 국가적 통제성의 필요 때문에 야기되는 제한을 가능하면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산업을 전환하고 통합하고 분화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는 보통의 속도를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또 하나는 러시아 경제의 청신호를 밝히면서 러시아의 경제 및 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나 제한들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채택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활동하게 될 투자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활동의 보장을 받을 것인지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80% 이상이 확신을 가지고 러시아 투자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러시아의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새로운 산업정책은 절대로 과거로의 회귀나 국유화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문명의 산맥, 자유민주경제체제의 열강 속에서 있는 러시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부문에서도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이 교육, 보건, 주택, 농촌, 특히 농업 거주민을 위한 몇몇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모든 것은 거시경제 안정을 통해서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정치경제의 안정과 대외 채무의 상당부분을 상환한 점, 또 우선 부문에 대한 집중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의 사업은 열거한 해당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우선 순위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년부터 전례 없는 예산을 할당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대국민 봉사 와 국민 복지를 위한 여러 분야에서 실시될 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러시아는 한국을 평화와 번영을 함께 할 파트너로 인식

한·러관계가 러시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이웃사촌'이라는 속담처럼 한국과 러시아는 지리적 인접성이 가까워 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걸쳐 긴밀하게 엮여온 역사적 운명 역시 양국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러시아인과 한국인은 20세기에 숱한 유사한 시련과 역경을 겪어왔다. 그 중에는 사회적 혼란, 빈곤, 유혈, 전쟁 등을 겪어야 했고 그것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권위적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구현하였다. 이제 두 나라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모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을 동북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함께 나갈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실제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UN주도하에 평등하고 다국화된 국제질서의 구축, 전쟁의 방지, 반 테러,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국제현안에 대해서 매우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협력에 좋은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 아닐 수 없다. 이 지역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남한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런데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핵문제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러시아는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있었던 4차 6자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것이 더욱 커다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4차 6자회담이 동북아의 평화안정 보장 및 협력의 새로운 미래구조의 기반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러 양국은 어떤 영역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 있어

지난 15년간 한국과 러시아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어업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관세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10개의 분야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포함해서 경제과학기술협력 한·러공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없는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육·해상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협력의 영역이 우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 결실로 2004년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어 2007년에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에 첫 우주인이 탄생할 예정이다.

한·러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측에 따르면 2005년 한·러 교역 규모는 8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 비교할 때 결코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에너지, 석유화학, 자동차조립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간 교역량은 지금보다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한국시장에 원료를 납품하는 국가 정도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헬리콥터 3대 중 1대는 러시아산이다. 또한 현재



러시아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첨단제품에 관한 한국 내 공동연구 및 실험생산에 관한 몇몇 협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관계의 협력은 인프라 부문에 있어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유럽과 한국의 철도건설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이 철도건설이 유라시아의 통합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더 나아가 동북아의 단일에너지시스템 구축 및 파이프망 건설에도 참여케 한다면 남북한에 상호 유익한 실리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양국 경제협력의 특징은 러시아 지방 정부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투자규모가 각 개별 지방 또는 공화국의 예산규모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대대적이다. 그 예로 현재 타타르스탄, 사하, 투바 등과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가 논의 중에 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 극동에서 한반도로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등 러시아와 남북 3개국 간에 경제협력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사실 오랜 세월동안 문화의 단절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러나 지금은 양국의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단절이 상당부분 극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증거로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한국관련 책이 출판되었고, 한국영화가 상영되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모스크바 및 그 외 도시에서도 손쉽게 한국영화나 비디오, DVD를 구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의 문화생활 속에도 상당한 러시아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제 쉽게 러시아공연을 볼 수 있고 러시아음악을 연주하는 한국음악인들도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는 여러 러시아공연들이 있었고 조만간 볼쇼이극단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양국 문화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TV방송사간의 교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등교육부문 특히, 기술부문에 있어서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양국 학생들이 상대방 국가로 유학을 가고, 청소년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양국 젊은이들이 과거의 선입견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를 잘 이해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에서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관련 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러관계의 새로운 중요한 발전의 기점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人間**

세계화, 글로벌시대 무한한 잠재력 활용을 위한 한민족네트워크 실현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는 네트워킹을 잘하는 민족이 국가경쟁력도 확보하고 강한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재외동포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아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이에 우리 재단은 재외동포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한민족의 무한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에 화상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상'이 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동포는 175개국 700만명에 이른다. 모국 인구대비 비중은 유대인 다음으로 많은 수이고 절대적 수치로 따져도 세계 다섯 번째로 지구촌 곳곳에 살지 않는 곳이 없다.

2002년부터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한상대회를 주관하여 올해 4차 대회를 마친 재외동포재단의 이광규 이사장은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은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경제활동에서 창출하는 가치가 매우 큰 만큼 이제는 한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자 출신으로 40년 동안 동포 문제를 연구해온 이광규 이사장을 만나 한상대회를 비롯한 재단의 한 해 활동을 정리해보고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연결의 전망과 과제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사진 오경근 원장

이광규 이사장 1932년 생 / 서울대 사범대 역사학과 졸업 / 오스트리아 빈대 문화인류학 박사 /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교수 / 美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애리조나주립대, 워싱턴대, 미주리대 교환교수 / 日 히로시마대 교환교수 / 재외한인학회 회장 /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 세계한민족포럼 상임공동대표 /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 서울대 명예교수

먼저 재단 소개와 함께 한상대회의 출범 배경, 진행 경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구 소련 및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이민역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동포사회 내의 세대 교체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따라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정부도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이에 1997년 3월 재외동포재단법이 공포되면서 10월 30일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175개국 700만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코리아닷넷 구축 사업을 3대 중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이나 한글학교 지원과 같은 교육사업도 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인 세계한상대회는 올해가 4차 대회로 회를 거듭할수록 재외동포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네트워크를 잘하는 민족이 국가경쟁력도 확보하고 강한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몇몇 동포 경제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통합되지 않아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98년부터 4차례에 걸쳐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흡했죠. 그러던 중 2002년 재단에서 세계한상대회 및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상대회의 목적은 동포 네트워크 상호간 및 동포 네트워크와 국내 기업을 상호 연결하여 상공, 무역, IT, 벤처,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민족 경제인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포 기업인들은 정보를 교류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기업인들은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민족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한상의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IE)가 발간한 '코리아 디아스포라(재외동포)와 세계경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700만 재외동포의 자산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도 평가지만 한민족은 이제 지구촌 곳곳에 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는 세계화 및 글로벌시대에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국가의 개념보다는 민족의 개념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죠. 이러한 가치들은 수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 4차 한상대회를 통해 한상섬유벨트가 출범됐다.

지난 9월 제4차 세계한상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이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그 의의를 정리해주세요.

지난 9월 13일~15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한상대회는 국내의 경제인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 비즈니스 미팅과 기업전시관의 상담을 통해 4억달러에 이르는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내참가자의 비약적인 증가가 두드러졌어요. 아울러 동포경제인들의 인식 제고로 동포단체 단위의 참가가 대회 필수요자인 개인위주로 전환됨과 동시에 미주지역 참가자 이외로도 참가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한상대회는 경기도의 '2005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해 지역 관광수입 증진 및 경기도와 재외동포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기대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개최에 이어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세계 한상을 통한 판로 개척이라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죠. 여기에 내년 5차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상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은 인적네트워크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인들은 수출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비즈니스 프로그램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대회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한상섬유특화전'처럼 재외동포들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인 식음료, 미용재료, IT 등의 분야에 대한 한상만의 비즈니스 특화전을 개최하여 한민족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4차 대회를 통해 '한상섬유벨트'가 출범했는데요.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섬유산업은 지난 30여년간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부터 가격경쟁력 약화, 기능인력 부족,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게 되



한상대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전세계 화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그 숫자가 60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력도 3조달러 이상으로 중국 GDP의 2배에 이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경쟁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억달러 이상의 화교기업이 500개사가 넘는 등 세계경제의 또 다른 중심을 이루고 있죠. 이러한 세계 화교권 거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화상대회는 1991년 싱가포르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8차 서울 대회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대회개최를 통해 화교들의 대중국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고도성장의 바탕이 될 만큼 대회의 성과도 거두고 있어요. 이번 8차 서울 대회에도 3500여명의 화상들이 참가해 화상과의 동반성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에서도 화상대회와의 정기 협의체널을 마련하고 정보교환 등의 교류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히 결속하고 상생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한상들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2005년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내년도 주력사업 계획도 소개해주시죠.

얼마 전 외교통상부 통계를 보니 중국과 캐나다, 필리핀 등의 동포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민족은 교육열이 높고 근면해서 어디서든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민족은 작은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말고 나가서 세계를 경영해야 해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한상이 되어 돌아오는 것으로 재단에서는 올 한해도 한상대회를 중심으로 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700만 해외동포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큰 몫을 담당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우리 재단에서는 2006년에도 한상대회가 중심이 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기 대회는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부산의 입지조건을 고려한다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업인들의 참가와 해외 참가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동포들의 3대 업종 중 하나인 미용재료 비즈니스를 금년의 섬유특화전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미용재료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흑인들을 상대로 쌓은 노하우 덕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모두 한국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회에서는 미용재료 비즈니스 특화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세계대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 중 20만명이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본인들의 잠재력도 상당하지만 그 배우자들의 잠재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배우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한국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있죠. 해외 동포들의 섬유산업도 미국과 중남미 지역에 밀집하여 교민사회의 경제기반을 이루는데 공헌해왔으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부상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회 기간 중 한민족 섬유산업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한민족섬유단체를 하나로 결집, 공동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섬유특화전'을 개최하고 '한상섬유벨트'를 출범시키게 된 것입니다. 섬유벨트에 참여한 단체로는 LA한인의류협회, 한아경제인연합회, 브라질한국상공회의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동대문의류봉제협회 등으로 향후 재외동포와 국내섬유 유관기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정보 및 기술의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의 기업들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하고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재외동포들이 함께 할 동포 포털 '코리안닷넷(Korean.net)'이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웹서비스의 의의와 운영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리안닷넷 서비스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8,000만 한민족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교류할 수 있는 사이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초 사이트 구축을 시작했으나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보완해 지난 6월 오픈하게 된 거죠. 이번 사이트 단장은 타깃메뉴의 재배치, 재단사업 DB의 콘텐츠화, 블로그 등 동포 참여를 위한 개인화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재외동포 이산가족찾기 사업, 재외동포 처녀 총각 중매지원, 우수재외동포 DB 확대 구축, 한상 사이버 박람회, 재외동포인증 시스템 구축, 세계한인태권도인 DB화 등 동포들이 유용하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세계화상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회규모나 역사에서 차이가 있었을텐데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또 이에 견주어 앞으로

지난해 한상대회 후 저희 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포스트 한상대회인 '제1회 글로벌비즈니스 리더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요. 향후 양 기관의 협력관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간개발연구원이 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외에서도 한국의 경영인들이 주축이 되어 '코리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은 우리 재단으로서도 적극 동참하는 부분입니다. 그 첫 시도로 지난해 제주도 대회 폐막 후 의욕적으로 서울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여 포스트 한상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행사 규모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국내외 기업인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뜻을 같이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런 모임을 한 두 차례 더 운영해 나가면 점차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한국에 자주 오시는데 기회가 된다면 연구원의 조찬모임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년 초에 브라질에서 재외동포경제인 CEO포럼이 열리는 데 연구원에서도 같이 협력하여 동포사회의 리더CEO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사장님은 오랜 기간 학계에 계시면서 세계 속의 한민족 발전사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차세대 경제리더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재외동포 1.5세대나 2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포 1세대는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유대관계가 있지만 2세대가 되면 시간이 갈수록 조국에 대한 애정이나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연령대로 현재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을 교육 뿐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 한국과 연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익이지만 멀리 내다본다면 그들 자신에게도 잘 아는 '외국'을 갖고 있다는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 한상대회에서도 '차세대 경제인 리더포럼'을 개최했는데 앞으로도 젊은 동포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사장님은 일흔을 넘긴 연세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특별한 건강관리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하고 집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한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나갈 때도 호텔에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해외출장이 잦은 편이지만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이념에 적극 동참하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창립 30주년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사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고는 있지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될만한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언론도 교양보다는 오락적 요소가 많아졌어요. 어찌 보면 한국사회가 정신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개발연구원이 30년 동안 '인간개발'을 모토로 조찬문화를 이끌어 오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인정하는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모임들이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인간개발'의 결실을 하나 하나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사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커짱' 만들기

이익용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

기업-대학, 교수-학생의 애매한 관계

필자는 기업과 대학을 오가며 커뮤니케이션, 셀프리더십, PR 등을 강의하고 있다. 문득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업종일까 생각해본다. 서비스업종이 아닐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식정보유통업자'인 셈이다. 그러니 가르치는 직업 가졌다고 폼 잡을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기업과 대학에 최고의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서비스맨이라고 볼 수 있다.

단풍이 질게 물든 캠퍼스를 나와 기업 연수원으로 향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본다. "대학에 기업은 어떤 존재일까?", "기업에 대학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보면, 대학은 기업에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해주는 훈련소다. 대학 교수들이 들으면 펄쩍 펄 애기지만.

그러면 "대학에 학생은 어떤 존재일까?", "학생에게 대학은 어떤 존재일까?" 이에 대한 대답 또한 명쾌하다. 대학의 고객은 학생이다. 그러나 그 동안 대학은 고객을 고객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학생 수가 줄어들자 대학이 고객(학생)유치를 위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막상 대학에 입학하면 학생은 여전히 찬밥이다. 교수나 교직원 아래가 학생이다.

"학생에게 교수는 어떤 존재일까?", "교수에게 학생은 어떤 존재일까?" 두말 할 것 없이 학생은 교수의 고객이다. 그렇지만 학생을 고객으로 여기는 대학교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기업, 대학, 교수, 학생의 관계는 이렇듯 명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 관계가 애매하고 유통과정도 복잡하다. 공급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대학의 업종, 교수의 업종도 애매하다. 그래서 진짜 고객인 학생과 기업은 대학이나 교수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출강하는 대학의 언론학부 학생들과 대학생 의식조사를 해봤다. 각 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는 과정인데, 꽤 재미있는 기사가 채택되어 언론에 소개됐다. 토익에 관한 내용인데, 대학생의 90%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영어실력 평가 때문이 아니라 졸업과 취업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즘은 업종, 직종과 관계없이 취업 조건으로 토익 점수를 묻는데, 그 때문에 모든 대학생들이 토익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의 대책은 별로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원비를 들고 유명 학원의 명강사들을 찾아 나선다.

신입사원 53.4%가 "대학 교육 불만스럽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4학년 2학기처럼 쓸쓸한 계절도 없다. 날씨가 싸늘해진 데다 마지막 학기이고 취업난까지 겹치니 더욱 그렇다. 물론 일찌감치 취업이 되어 학교에는 나오지 않고 출근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어찌 될지도 모르는 인턴사원 자리 지키느라 수강신청만 해놓고 수업에도 못 들어오는 학생의 빈자리를 보는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더구나 아무 대책 없이 마지막 학기, 마지막 수업까지 꼬박꼬박 출석하는 졸업반 학생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욱 안타깝다.

요즘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수요의 부족 때문이다. 일자리가 부족해서다. 산업 구조의 변화, 경기의 후퇴가 큰 원인이다. 그러나 신입사원의 훈련 부족도 큰 원인이다. 기업은 당장 데려다 일을 시킬 인재를 찾는데, 대학은 '불량품' 인재를 배출하니 기업이 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훈련하는 데에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들고, 기간도 2~3년이나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은 신입사원보다 잘 훈련된 경력사원에게 눈을 돌린다.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는 바닥 수준이다. 어느 취업 포털

이익용 교수 1951년 생 / 국민대 영문학과 졸업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 쌍용그룹 홍보팀장 / (주)알로에마임 이사 / KT문화재단 본부장 /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 / 월간 '아버지와 가정' 편집인 / 방송활동 및 KTF, 현대자동차, 삼성생명, 한국은행, LG전자 등 기업체 출강 / Communication Producer / 아담재연구소 소장 / LeeComm 대표

사이트의 조사로는 68.7%, 전경련의 조사로는 50%를 넘지 못한다. 국내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평가도 50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은 심각하다. 오죽하면 자신이 4년 동안 받은 대학교육을 불만스러워 하는 신입사원이 53.4%나 될까?

대학의 최대 고객은 기업이고, 교수의 고객은 학생이다. 그런데 고객인 기업과 학생이 대학과 교수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불신하니 큰일이 아닌가. 이는 시대에 뒤진 교육 내용과 교수방식, 낙후된 시설환경 등이 엮여낸 종합작품이다. 학교의 고객은 교직원도, 재단도 아닌 학생인데 아직도 대학의 주인은 교수와 교직원이다. 서울대학교가 세계 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의 베이징대학은 일약 10위로 부상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기업은 '전문성 갖춘 커뮤니케이터'를 찾는다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입사원에게 부족한 점'은 전문성, 대인관계능력, 국어 능력, 외국어 능력이다. 1위를 빼고는 모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평생 기업에서 일해온 필자의 경험으로 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의 조건은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탁월한 전공 분야의 능력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란 한 마디로 '전문성을 갖춘 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말이 통하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다.

히딩크 감독과 본프레레 감독은 모두 세계가 인정하는 축구 지도자다. 그러나 한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을 잘 했고, 또 한 사람은 그걸 잘 하지 못했다. 새로 부임한 감독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 다행이다. 박찬호 선수도 뛰어난 커뮤니케이터다. 이영표나 박지성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정보화 시대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삶은 80% 이상이 커뮤니케이션이다. 100을 알고 50을 표현하는 사람과, 80을 알고 80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 상대방이 100을 말하는데 60을 알아듣는 사람과, 상대방이 100을 말하는데 100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과연 어느 쪽이 성공하겠는가.

필자는 커뮤니케이션을 못 하는 사람을 '커멍',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을 '커짱'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고도 말하기, 듣기, 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젊은 '커멍'이 수도무하다. 그래서 어렵게 취업을 하고도, 우리말로 보고서나 기안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남들과 커뮤니케이션도 못하고, 발표도 못한다. 푹푹하기는 한데 외국인처럼 당장 말이 안 통하니 제 역할을 못 해낸다. 그런데도 대학은 기껏 해야 면접 요령이나 자기 소개서 쓰기, 이미지 메이킹 같은 알팍한 테크닉만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은 토익이나 토플에만 매달리고 있다.

'커짱' 양성해야 기업이 산다

커멍을 많이 거느린 기업은 말이 안 통하는 커멍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커멍 기업에서는 상하좌우의 구성원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따로 리더십을 가르치고, 코칭을 가르치고,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PR을 가르치고, 고객만족을 가르친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알면 모든 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텐데, 그걸 빼놓고 다른 걸 가르쳐봐야 헛일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직장인에게 '구구단'과 같은 만능키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필자는 몇 년 전부터 대학에서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말하기, 듣기, 쓰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론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 글, 표정, 몸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표현을 입, 귀, 마음으로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 나아가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합의하는 토론, 협상, 회의 방법도 훈련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고, 취업한 졸업생들은 고마움을 표해오고 있다.

필자의 교수법 핵심은, 강좌 이름처럼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충실해지는 것이다. 실질적인 내용을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고 연습시키는 것이다. 이른 바 '3탈 교수법'이 그것이다. 즉 교과서와 이론을 탈피하여 몸으로 체험하기, 교실을 탈피하여 일상에서 공부하기, 교수 중심에서 교수와 학생이 협력하여 공부하기 등이다.

CEO의 생각이 현장에 20%밖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리더그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속으로 몸살을 앓는 기업도 적지 않다. 흔히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인체의 혈관에 비유한다. 그러나 필자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호흡'에 비유하고 싶다. 사람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듯, 경영 활동은 구성원들이 서로 말하고 듣는 활동이며, 기업과 고객이 서로 말하고 듣는 활동이다. 이게 잘 돼야 기업이 산다.

필자가 깨달은 바로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는 방식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윈-윈(win-win)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체험교육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커멍'들이 모인 조직이 말이 통할 리가 없고 잘 될 리가 없다. '윈-윈(win-win)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커짱'들이 모인 조직이 말이 잘 통하고 성공한다.

대학과 교수의 고객은 학생이고 기업이다. 대학이 진정한 '커짱'을 길러내고, 기업이 조직내 '커멍'을 '커짱'으로 양성해야 우리 모두가 잘 산다 (win). **人間**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오숙희 성공회대학교 교수

제51회 광주 광산구 '어등자치포럼21' 10월 28일(금)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강연으로 현재 50회가 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는 "어등자치포럼21"은 지난 2000년 본원과 광주 광산구청이 정보화·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접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어등자치포럼은 새로운 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교육제도라는 인식으로 인해 자기계발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도덕적 가치관과 지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를 주제로 제51회 강연을 해주신 오숙희 성공회대 강사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제가 오늘 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사람 하나 하나를 인격적으로 볼 수 있어야 꿈 얘기가 가능합니다. 사람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으면 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서 기계처럼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근대로 가면서 인간이 어떻게 기계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바로 획일주의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 식민지시대와 군사정권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모두 동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여러분 하나 하나도 이제는 획일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

오숙희 교수 1959년 생 /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 / 대학, 직장인, 주부, 사회단체 대상 3500여회 강연활동 / KBS TV "생방송 여성" 진행자로 방송활동 시작, 현재까지 라디오와 TV에서 진행자, 패널로 활동 /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소 수석 부소장 / 개인상담소 "해심터" 운영 / 저서 <수다로 풀자>, <딸들에게 희망을>, <부부 살어? 말어?> 외

다. 그리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지역에 살면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살 때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뿌리내리고 살아온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를 어떻게 잘 가꿀 것인가에 생각과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늘 옆집 잔디가 푸르려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이사만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매일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보면 뭐 하나 모여지지 않습니다. '100m 안에서 차선변경 3회 이상 하는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할까 하는 생각에 모든 신경이 분산되기 때문에 창조성이라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성은 인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주체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뿌리박고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백 번 쉽습니다. 힘도 훨씬 적게 들어요. 지금 사는 이 공간에서 적응하며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미 획득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정서적 안정입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이 동네를 떠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보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때부터 이 지역에 뿌리내려 놓은 기반을 자식들한테 전수시켜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곳에서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화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는 것에서 시작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사시면서 무슨 꿈을 꾸셔야 되는가?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현실과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안 오는 것,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꿈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꾸는 것처럼 꿈도 꾸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니 얼마 후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미리 앞당겨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현실화 됐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현실화되었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날아가 버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어지는 꿈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꿈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꾸면 망상이지만,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됩니다. 바로 그 꿈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7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

루어지고 나면 뇌가 권태라는 호르몬을 내보내게 됩니다. 뇌가 급속한 무력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7년 뒤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광산구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7년 단위로 목표를 세워서 이뤄나가신다고 하면 오늘 여기 오신 이 숫자의 사람만 있어도 광산구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조직이고 가정이고 개인 안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안에서는 그 사람의 특징적 핵심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달리는 열성분자들이 됩니다. 그런 열성분자 몇 명만 있어도 조직이 달라집니다. 재미있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성원의 10분의 1만이 리더십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00명씩 모여 있는 조직 10개에서 각각 10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100명이 뽑혔겠지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100명은 리더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중에서도 10명만 리더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신이 어떤 좁은 곳에서는 리더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 자기보다 열성적인 사람들에게 가면 스스로 포기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절대로 상대평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주체적으로 해야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빠지고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생각, 그것은 아니죠.

꿈은 변화된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

꿈은 현실의 반대가 아니라 현실을 앞당겨 오는, 현실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변화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가 그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달라요.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은 반드시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당장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뉘가를 계산하고 찾아내는 것, 그것을 결합시켜서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반드시 행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꿈은 절대로 머리로 꾸는 것이 아니며, 게으름뱅이가 아닌 굉장히 부지런한 행동주의자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하고 싶다 말만 해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무엇입니까? 행동이거든요. 제가 <그레 수다로 풀자> 같은 책을 쓴 이유도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하고 행동하는 이런 변화를 가지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은 누적된 행동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실현 가능

꿈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모습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비전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적어도 7년 정도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갖 낳아서 누워만 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조? 너무 신기하죠. 이 아이는 지금까지 뒤집기를 위해서 6개월을 버틴 겁니다. 그리고 7개월 쯤에 뒤집은 거죠. 지금 6개월 거의 끝나 가는 데도 뒤집을 기미가 없던 아이가 다음날 7개월 쯤 되면 뒤집습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변화라는 것으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현상화 되지 않으면 조기에 포기하게 됩니다. 한번만 더 말했으면 되는데 여섯 번째 말하고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교육학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콩나물을 시루에서 키우잖아요. 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 물은 시루 밑바닥에 난 구멍으로 다 빠집니다. 사람들은 물을 붓기만 하면 다 나와 버려서 콩나물이 물을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클까 하지만 콩나물이 크잖아요. 이것이 '콩나물 이론'입니다. 교육은 콩나물 기르기와 같습니다. 아이한테 내가 지금 물을 부었지만 아이가 전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다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동안에 이것이 누적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7번 정도는 말해줘야 됩니다. 인풋(input)이 7번은 되어야 아웃풋(output)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출력되기 시작하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다 나온 다음엔 출력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출력되는 동안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용, 콘텐츠,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입력을 했다면 그것은 다음 길로 나가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와 초석이 되는 것들을 신경 쓰고 선별해야 합니다. 꿈을 꾸더라도 어떤 꿈을 먼저 꿀 것인가, 어떤 꿈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중에 더 기반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의무와 권리

꿈의 내용도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러하데, 이 광산구 전체를 생각할 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오늘 이곳 광산구에 도착해서부터 계속 들은 얘기가 교육도시,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최고죠. 21세기 세계적인 화두가 복지와 교육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북구라파는 세금이 엄청 비쌉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스웨덴과 같은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세금을 내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권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소원이 누릉지라고, 누가 무엇이 먹고 싶냐고 했더니 '누릉지 없을까요?' 합니다. 본 것이 누릉지밖에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친숙한 것,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뭔가 달라지고 새로운 것을 하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꿈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전

과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껏 안 하던 것을 해 봐야 합니다. 현상유지라는 것은 길게 보면 퇴보입니다. 잘 될 때 그 다음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작은 범주 안에만 있어서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됩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 자체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이 도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아서 이 지역에 성장한 아이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지요. 이것을 장사에 비유하여 말하자면, 우리동네 사람들만 고객으로 삼을 때에는 한계가 너무 뻥합니다. 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현이라는 곳에서 약 10년 전에 우리나라 가수 이상은 씨를 초대했습니다. 그 지역의 작은 주부모임이 주치를 한 것이었는데 놀라게도 그들의 목표는 "구마모토를 아시아문화의 중심으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기 나라가 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또 놀란 것은 공연장이 그곳 상가 안에 있었는데,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첨단시설을 갖춘 훌륭한 공연장이었습니다. 팜플렛도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지역 여성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공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공민관에서는 근처 대학의 교수들이 초빙되어 주부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게 바로 평생교육인 거지요. 그래서 주부들이 저마다 관심있는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모여서 구마모토현을 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상은 씨를 초대한 것입니다. 자기네 동네에 이런 공연장이 있으니 이것도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런 것이 곧 기반시설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자체의 힘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렇게 튼튼한 배경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하는 것이 지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꿈꾸는 자들이 힘을 합칠 때 지역도 발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무엇이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사람으로서 행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할 때 지역도 발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정신, 세상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절대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광산구도 여성들이 파이팅 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남성들과 힘을 합치면 여러분의 삶에 꿈이, 비전이 현실로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人間**

사람됨의 진리를 찾아서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새천년 첫 세기 21세기를 맞아 6년째인 2005년을 이제 한 달 남겨 놓은 12월에 들어섰다. 11월 18일~19일까지 개최된 APEC정상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21개국의 정상들과 역대 국가들을 배경으로 한 세계 정상들의 CEO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PEC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개최되었다고 자평 타평이 무성한 가운데 폐막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았다. 이번 APEC정상회의는 여름 내내 먹구름에 쌓여 지루하기 그지없는 장마철에 온 세상을 밝혀주는 한줄기의 빛과 같았다. 그 덕에 우리의 푸른집 주인은 그가 대통령이 되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누리게 해주는 것 같았다.

한국 현대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등 4강 정상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며 남기고 간 정상회담의 빛과 그림자는 무엇일까. 그리고 1000여명에 가까운 세계 기업의 정상 CEO들이 한국경제와 기업에 남기고 간 빛과 그림자는 어떤 것일까. 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의 역사적 의미가 아직 우리 뇌리에 생생한 가운데 이번 APEC정상회의는 더할 수 없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불황으로 좌절과 실망에 빠진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국은 이미 큰 나라로 성장했고 희망이 있는 나라임을 일깨워 주는 쾌거였다. 또한 전 행사 과정을 통해서 세계 제일의 IT강국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줘 국가적 자긍심을 드높여 주었다.

지난 11월은 우리 모두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다. 1909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20세기를 몽땅 살고 21세

기에 들어와서도 90대 후반에 들어서는 세계적인 영웅, 거목, 거장, 석학, 철인, 현인 등의 존칭을 한 몸에 누려도 어색함이 없을 만큼 훌륭한 인생을 거둔 향년 95세인 피터 드러커 박사의 영면이다. 드러커 박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30~40년의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과 한강의 기적에 관심이 많았고 세계적인 경제학자, 경영학자로서 특히 한국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인데도 최빈국에서 수 십 년만에 선진국 언저리에 접어든 데 대해 특히

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다는 풀이를 하고 있다. 그가 남긴 35권의 저서 중에서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S그룹, D그룹 등 대기업들이 많은 시련과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한국을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국가로 칭찬하고 소신있게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서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의 기업가나 학자들에게 따스한 애정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점이 드러커 박사의 위대한 삶과 그의 영면에 우리 국민의 깊은 관심과 진심어린 애도를 갖게 했으리라.

사람의 진가는 관 뚜껑을 열어보아야 들어 난다고 말한다. 인생은 고해와 같이 힘들다고 하지만 한 사람의 생애란 잘만 살면 살아갈 가치가 있고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커 박사는 우리들에게 값지고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가신 분이다. 무엇이 드러커 박사를 95세까지 장수하게 했을까. 그의 수많은 저서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해달라고 질문하면 다음에 나올 책이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조금은 유머스럽게 대답했던 그는 95세의 젊은 학자로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집필을 계속하며 학자로서, 저술가로서 장수하였음에 경의와 애도를 받고 있다.

필자는 1975년 2월 5일, 인간개발연구원을 창설하고 3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으면서 IT, BT, NT, ET, ST 등 첨단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PT(People Technology)가 첨단기술 가운데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원 30주년을 맞아 30년의 지난날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PT개발의 과제를 좀 더 깊이 다루어 새천년 첫 세기의 국가적 과제와 세계적 과제로

부각시켜 보고자 많은 구상과 생각을 하면서 2005년 한 해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에 이르게 되었음을 달력의 마지막 장에서 보게 된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라는 인간개발의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 하에 1995년 9월 15일에 시작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크게 성공했다는 국가적 평가를 받는 가운데 연구원 30년의 또 하나의 결실인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이 양병무 원장의 집필로 출간되어 우리 연구원의 30년사가 거둔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아름다운 열매로 생각하며 큰 보람을 갖는다. 연구원 창설의 바탕이 된 LMI 인간개발 교육프로그램은 30여년의 인내와 각고의 노력 끝에 명문대학(숙명여대)과 우수기업(롯데호텔, 교보생명 등)의 총장님을 포함한 최고경영층이 참여해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대상황에서 확실한 결과가 있는 변화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된 것도 연구원의 성장 과정에 겪게 된 모든 어려움에 대한 위로로 삼는다.

세계의 평화(Peace), 인류의 번영(Prosperity), 인간의 행복(Happiness)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자유'를 확장시키는데 힘쓰며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과 경영자 그리고 각계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유사한 많은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국내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블루오션 프로그램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원의 발전 구상이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족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신이 창조한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개성있는 연기자로 인생을 꾸민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러시아 작가 M. 고르키의 명언에서 사람됨의 진리를 찾자.

Better People Better World 독자 여러분과 기업가, 경영자 그리고 각계의 지도자로서 연구원의 회원으로 참여하여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마음속 깊이 감사로 2005년 송년인사로 드립니다. (人間)



인간개발 30년 새로운 비전을 향한 힘찬 도약

창립 30주년을 맞은 인간개발연구원은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연구원의 이념을 널리 알리고, 교육을 모토로 한 인간개발을 통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작은 힘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2005년은 연구원 30주년을 맞아 향후 30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이에 올 한 해 연구원의 활동들을 정리해 보고 다가올 2006년, 또 그 이후 연구원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 창립 30주년 기념포럼

한국의 未來와 經濟成長의 正道



본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 동안 교육을 통한 인간개발을 비롯한 연구원의 비전과 활동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역대 회원사의 경영자, 정부인사, 역대 강사, 언론인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을 모시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는 창립 30주년 기념포럼을 3월 8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의 未來와 經濟成長의 正道"를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서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정준석 중소기업청 차장(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연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관),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현 한국기업데이터 사장), 조현정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영기 노동연구원 원장,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전) 등 중소기업에 관련된 8개의 유관기관에서 강사로 참여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특히 각각의 대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한국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正道를 제시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 행사는 이병혜 KBS 시사전문 앵커의 사회로 그 동안 연구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기념공연 등이 이어져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오다케 요시키 AFLAC 창업자 · 최고고문 초청

창립 30주년 특별세미나

세계경제사에서 압축성장의 대명사로 간주되는 한국과 일본,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의 성장이 예견되는 중국 등 동북 3국은 지구촌의 중심세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한·중·일 3국의 관계 재정립과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특별세미나가 본원 주최로 열렸다. 2월 3일 본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제138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겸한 특별세미나에서는 일본 최초의 '암보험'으로 시작한 '아메리칸 패밀리생명보험(AFLAC)'을 일본 최대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로 성장시킨 오다케 요시키 창업자·최고고문을 초청하여 "한·중·일 경제인들은 아시아시대를 어떻게 열어가 것인가"를 주제로 한·중·일 경제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아시아시대를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재육성, 벤처기업 육성, 재계단체 활동 등 왕성한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오다케 최고고문은 '양치기리더십'을 주장하며 인재중심의 경영비법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새벽을 깨우는 대표 공부모임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강연회라는 명칭조차 낳았던 1975년 본격적인 조찬강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시작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1월 6일 신년하례회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며 배움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특히 조순 전 부총리는 2005년 첫 강연에 나서 "세계 경제의 환경변화와 한국경제의 방향"을 주제로 한 해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김승규 법무부 장관(현 국가정보원장), 정창영 연세대 총장,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권영설 환경 가치혁신연구소 소장, 정덕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상구 한국생명운동본부 대표, 이원덕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 글레브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등 정치, 경제, 경영, 교육, 건강, 외교 분야의 다양한 강연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한편 11월 현재 1429회의 강연이 이어지고 있는 인간개발경영자 연구회는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자동차로 떠나는 남해안 어촌관광축제**



본원이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주최해 전국의 자가운전자들이 남해안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자동차로 떠나는 남해안 어촌관광축제'가 6월 4일~6일, 2박 3일 연휴를 이용해 진도와 거제를 거쳐 여수로 집결하는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제1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고, 한국 경제도약을 위한 세계적인 빅 이벤트인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 행사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관광지 요금할인, 향토특산물 제공 등과 함께 참가자들에게 주유권을 나누어주기도 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사에서 요금할인, 한국철도공사의 남해안 찾아가기 상품 등을 마련하고 자가운전을 원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위해 버스여행상품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Global Koreans Network를 위한 남미문화투어



국회 통상분과위 등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와의 대외통상 확대 구축과 남미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본원에서는 8월 24일~9월 4일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남미문화투어'를 진행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이번 투어는 천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남미지역을 둘러보는 한편 각 지역 한인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남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 일본 도요타자동차 시찰단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으로 도요타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기업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시찰하는 프로그램이 9월 25일~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

되었다. 이번 시찰단은 한국도요타자동차의 협조 아래 회원사 및 관계사 3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일본 현지 도요타자동차, 도요타박물관, 관련 기업체 등을 방문하고 관련 세미나와 2005 아이치 박람회를 참관하는 등 선진경영철학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한국·몽골 협력관계 위한 간담회

5월 3일 본원은 한국과 몽골의 협력관계를 위한 양국 관계자들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와 서울시간



의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서울시에서 개최한 '울란바토르의 날' 행사에 참석한 몽골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이 7명이 본원 회원들과의 상호 교류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몽골어와 한국어로 발행되고 있는 <위대한 민족>의 발행인인 나차도르츠 첸드마 씨를 비롯해 체덴발 촌출마 울란바토르시 수흐바토르 구역 구청장 등 일행은 몽골이 한국과 상호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장만기 본원 회장을 비롯해 김만기 SH공사 감사, 황석희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 등이 참석하였다.

■ 사랑의 쌀나눔 1주년 기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방문



본원은 2004년 9월부터 시민의 신문,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사)모범운전자회 서울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행사는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택시 봉사대가 무의탁 노약자 등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해 노인공경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사랑의 쌀나눔 1주년을 기념해 그 동안 봉사해 힘써온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들이 8월 22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가졌다. 총 12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둘러보는 한편 아산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등 향후 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장만기 회장 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

장만기 본원 회장은 10월 18일 중앙인사위원회(조창현 위원장) 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제35회 인사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창현 위원장과 이길여 의장(경원대 총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위원회 간부 등 총 22명이 참석하여 위원회가 추진중인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 '인사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 양병무 원장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양병무 본원 원장은 10월 12일 새롭게 출발하는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위원장 송위섭 아주대 교수) 위원으로 위촉되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은 양병무 원장을 비롯하여 송위섭 위원장,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 11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 최혜영 프로와 함께하는 회원친선 골프포럼



회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선의의 경쟁과 친목도모는 물론 경영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버린 '최혜영 프로와 함께하는 골프포럼'이 40여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7월 14일 선주리21 C.C에서 열렸다. 경기 후에는 최혜영 프로의 원 포인트 레슨과 민병철 소장의 "골프

라운딩 후 울 수 있는 근육손상 등에 따른 골프손상 및 재활"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열려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석홍 회원이 대파상을 수상하는 등 푸짐한 시상품이 회원들에게 돌아갔다.

■ 저자와 함께 떠나는 주식회사 장성군 투어

지방자치 실시 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서 <주식회사 장성군>으로 출판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전남 장성군에 대한 회원들의 방문요청에 따라 본원은 11월 16일 3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장성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번 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리더 한 사람의 생각과 교육의



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 김홍식 군수에게 직접 들어보는 한편 변화와 혁신의 상징인 장성아카데미하우스와 홍길동 생가, 필암서원 등을 둘러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이종기업동우회 정기활동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2그룹 다락회(회장 전순표 세스코 회장), 3그룹(회장 황석희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 4그룹 인목회(회장 김정배 수성 사장), 인경회(회장 이심 주택문화사 사장), 지중해클럽(회장 박돈서 아주대 명예교수)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사 방문, 초청강연, 골프모임, 여행 등의 모임을 가지며 상호 친선 및 경영정보 공유 등 본원 30년 역사의 회원교류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 YCF 정기모임



YCF(회장 김상래 성도GL 사장)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회원들간의 상호교류를 극대화 하고 있는 가운데 5월 정기모임에서는 안국동 민가 다현의

정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에서는 조천제 블랜차드컨설팅(주) 대표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를 주제로 다양한 영상과 슬라이드를 통해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시어 YCF 후배 경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YCF는 이 외에도 골프모임, 초청강연 등 활발한 활동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 차이나클럽 정기모임

세계경제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학습하고 관련 정보를 나누기 위한 차이나클럽(사무총장 이두호 (주)KIS-BANK 사장)에서는 3월 정기모임으로 3월 15일 인사동에서 등소평의 일대기에 대한 독후감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날 남기열 동부증권 본부장은 등소평의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인간개발 지방자치아카데미



민선지방자치제 도가 도입된 1995년 전남 장성군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로 시작한 본원의 지방자치아카데미가 10년이 되었다. 영광군청, 동해시청, 광양시

청, 양양군청, 철원군청, 동작구청 등 신규 개설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지자체에서 490여회의 아카데미 강연이 이루어졌다. 천정배 법무부장관, 최승담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욱 전 과기부 장관, 강신장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고승덕 변호사,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찬용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최병대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 등이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지자체의 역할과 비전 및 혁신방안, 그리고 민선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등 다방면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최병대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의 "한국지방자치 10년의 회고와 향후 과제", 정찬용 전 인사수석의 "격변의 21세기 어떻게 맞이할까?" 등의 강연은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지역혁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아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명강의로 평가되었다.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0주년 기념포럼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본원은 지방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본원과 장성군(김흥



식 군수)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1995년 9월 15일 개설하였다. 이후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된 장성아카데미가 9월 15일 10주년을 맞아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념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부문별 주제발표로 이어졌으며,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안들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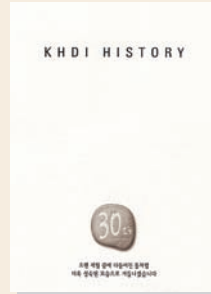
■ 주식회사 장성군 출간

양병무 본원 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경영혁신을 담은 책 <주

식회사 장성군>을 출간하였다. 작은 시골에 불과했던 전남 장성군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학습과 교육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창립 30주년 기념 연감 - KHDI HISTORY 발행



1975년 2월 5일, 연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이에 본원에서는 지나온 30년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연감 (KHDI HISTORY)를 발행하였다. 이번 연감 발행은 30년간의 기록을 정리한다는 의미 외에도 우리나라 인간개발의 역사를 투영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각 연도별로 세미나, 회원, 간행물, 사회활동, 지방자치아카데미, LMI 등 6개의 매뉴얼로 분류하고 화보를 혼용·구성하여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 기업, 대학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LMI 프로그램

사람이나 조직이나 변화하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설사 변화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기에 변화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두려워 저항하다가 혹독한 결말을 맺기도 한다. 이에 퍼스널 리더십 과정을 통해 개인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되도록 돕는 "성공하는 리더들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EPL)"이 기업은 물론 대학에서까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2월 1일 본원의 회원사인 다산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으로 3월 3일 성도GL 임원 리더십과정, 3월 5일 마스터시스템 임원 리더십과정, 6월 20일 국일메카트로닉스 임원 리더십과정, 7월 1일 숙명리더십개발원 교수진 리더십과정, 7월 14일 호텔롯데 임원 리더십과정 등이 개강되어 총 16주간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국일메카트로닉스 교육은 성도GL의 교육성과에 힘입어 진행된 교육이었으며, 호텔롯데 임원 리더십과정을 통해 11월 18일 롯데그룹중앙연수원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EPP)"이 개강하기도 하였다. 특히 숙명여대는 현재 4기 과정까지 진행되고 있을 만큼 교육성과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한편 EPL 62기, 66기, 68기 과정이 교육 및 개강 예정에 있어 LMI 프로그램이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人間



회원&연구원소식

■ 회원소식

• **21C 한중교류협회 명예회장인 박세직** 전 88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의 서울올림픽에 관한 저서 <하늘과 땅 동서가 하나로>가 중국어로 <나는 서울올림픽을 이렇게 계획하였다>로 중국 中信출판사의 요청에 의해 출간되어 아래와 같이 출판기념회를 가진다.

- 일 시 : 12월 8일(목) 11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한국아쿠르트(김순무 회장)**는 지난 11월 16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6개 도시에서 '아쿠르트 아줌마'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지고, 11만 포기의 김장을 담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2만 5000여 곳에 전달하였다.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05년 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 전자 부문에서 **삼성석유화학(허태학 사장)** 등 3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 **GE코리아(이재욱 회장)**는 11월 21일 강원도 평창군 피닉스파크에서 국내 20개 계열사 사장단과 8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GE의 새로운 환경경영 전략인 '에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을 발표하였다. 에코메지네이션은 환경(Ecology)을 의미하는 Eco와 상상력을 의미하는 Imagination의 합성어이다. 한편 GE Korea는 이에 앞서 11월 사무실을 청담동 신사옥으로 이전하였다.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1-3 지이타워 (GE Tower) 14층
- 전 화 : 02-6201-3001 · 팩 스 : 02-6201-3006

• 자수직물 전문생산 중소기업인 **(주)부천의 이시원 대표**는 지난 11월 8일 제19회 섬유의 날을 맞아 최고상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 **(사)서울그랜드오페라단(이경애 이사장)**에서는 지난 11월 4일~6일까지 3일간 시각장애자를 위한 오페라 "La Traviata(춘희)"를 한전아트센터에서 공연하였다.

• 서울시의 32개 기업·단체와 제주도의 32개 농어촌 마을이 '사서촌운동' 결연식을 가진 후 **장경작 호텔롯데 대표이사**는 결연기업·단체 대표들에게 돼지고기와 국수로 마을잔치를 베풀었다.

• **영문월간 Diplomacy(임덕규 회장)**는 창간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감사에 보답하고자 지난 11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념 리셉션을 가졌다.

• **이심 (주)주택문화사 사장**은 11월 1일 (사)한국잡지협회(회장 강원회)가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제40회 잡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훈·포상인 은관문화훈장을 수여 받았다.

• **동서식품(이창환 대표이사)**은 스타벅스와 액상커피음료의 수입,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액상커피음료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 **강석진 회장(CEO컨설팅그룹)**은 한국의 구상미술 화가들의 '신작전'의 제23회 연례 정기전시회를 삼성SDI의 후원으로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 서 개최하였다.

• **삼성석유화학(허태학 사장)**은 11월 1일 울산 사업장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B2B 부문에서는 최초로 서비스 브랜드를 도입하고 브랜드 선포식을 가졌다.

• **비틀맵(김은영 사장)**이 지난 11월 18일 발표된 IMTA(International Map Trade Association) Map Awards에서 2개 부문을 석권하면서 입체그림지도 전문제작업체로서 세계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수상작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청계천 지도와 금강산 지도 스카프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비틀맵의 해외시장 진출이 보다 본격화 될 전망이다.

• **BIG DREAM&SUCCESS(공한수 사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등산대회 및 교육수료자 전체모임을 갖는다.

1. 제 17차 등산
 - 일시 : 11월 27일(일)
 - 장소 : 불암산
2. 제26차 수료자 전체 모임
 - 일시 : 12월 12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BIG DREAM&SUCCESS 교육장

■ 신규회원



장성근 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 주 소 : 서울 종로구 원남동 66-21번지 보령빌딩 6층
 · 전 화 : 02-740-4111
 · 팩 스 : 02-740-4114
 · 업 종 : 4년제 정규대학
 · 추 천 인 : 양병무 원장(한국인간개발연구원)



김향순 교차로(주) 회장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30-6 삼육빌딩 4층
 · 전 화 : 031-656-0700
 · 팩 스 : 031-656-1212
 · 업 종 : 신문발행
 · 추 천 인 : 양병무 원장(한국인간개발연구원)



백경훈 (주)피전항공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4 고려빌딩 913호
 · 전 화 : 02-730-1701
 · 팩 스 : 02-730-1706
 · 업 종 : 여행사
 · 추 천 인 : 이경우 회원(전 미얀마 대사)



임미경 대불대학교 음악과 교수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36
 · 전 화 : 02-3476-5030
 · 팩 스 : 02-3476-2030
 · 업 종 : 신문발행
 · 추 천 인 : 고지석 회장(고지석세무회계사무소 회장)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유상욱 / (주)코리아나화장품)은 지난 11월 24일 유상욱 회장의 화장박물관 개관 2주년 기념과 겸하여 space*c에서 정기모임과 함께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부부를 초청하여 행사를 가졌습니다.

· 다락회(회장 전순표 / (주)세스코)는 11월 정기모임을 지난달 1일 서울클럽에서 가졌으며, 2006년 다락회 회장으로 박세직(한국청소년마을총재) 회원께서 수고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 / 주택문화사)는 11월 정기모임을 23일 한양CC에서 가졌습니다.

· YCF(회장 김상래 / (주)성도GL)는 송년모임을 지난달 28일 홍지동 석파랑에서 가졌습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두상달 칠성산업(주)사장**의 자녀 하나양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사오니 회원여러분의 축하부탁드립니다.

· 일시 : 12월 3일(토) 오후 5시 30분
 · 장소 : 코엑스 컨벤션센터 1층 그랜드볼룸

· **김정배 (주)수성 사장**의 차녀 현주양의 결혼식이 지난 11월 17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김석기 관동실업(주) 회장**의 장남 남윤군의 결혼식이 지난 11월 21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자자체소식

· 2005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종강

각 지역 공직자와 시·군민들의 의식변화와 발상전환을 통해 지역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지방자치아카데미가 2005년도 교육을 마감하는 마지막 강연을 갖는다. 광양사랑 일등시민강좌는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이 21세기 한국농정의 방향에 대한 강연을 하고, 2005 담양포럼은 이건영 중부대 총장이 지역관광특화산업의 육성과 전략에 대한 강연을 하는 등 각계 최고의 강사들이 각 지역에 개설된 아카데미에서 올해의 마지막 강연과 함께 종강식을 하게 된다.

· 거제시민자치대학 수료식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장으로 마련된 거제시민자치대학이 11월 24일 마지막 강연 후 수료식을 가졌다. 마지막 강연은 황병태 대구한의대 총장이 "동양의학의 세계화와 현대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강연 후 가진 수료식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참석율이 우수한 참가자 32명을 선정하여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세스코	전순표 회장	(12월 1일)
원근건설	한의섭 회장	(12월 7일)
(주)삼탄	강태환 사장	(12월 10일)
중원콘텍(주)	김만용 사장	(12월 10일)
신명인터내쇼날(주)	최해규 회장	(12월 15일)
(주)다영산업개발	이종원 대표이사	(12월 16일)
(주)성도GL	김상래 대표이사	(12월 17일)
원풍물산(주)	이원기 회장	(12월 20일)
주식회사 교보문고	권경현 대표이사	(12월 24일)
한일시멘트	허정섭 회장	(12월 28일)
선진개발(주)	안민호 대표이사	(12월 29일)

인간개발연구원 2005 송년의 밤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30년 동안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벗이 되고자 노력한 인간개발연구원이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원 여러분들을 송년모임에 초대합니다.

2005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일년을 되돌아보며 그 동안의 노고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따뜻한 인사와 마음을 나누고자 다음과 같은 송년모임을 마련하였사오니 가족분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다양한 행사로 즐겁고 신나는 송년의 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년모임의 수익금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 병영도서관 건립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동떨어진 69만 우리의 젊은이들이 오늘도 2년여의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손꼽고 있습니다. 이에 군대에서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다면 인생의 황금기에 군생활을 하고 있는 당당한 젊음이 더욱 값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기 / 원장 양병무

- 일시 : 12월 26일(월)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힐튼호텔 컨벤션홀 / • 회비 : 1인 9만원(부부동반 17만원)

• 리셉션 / 환영인사

• 오프닝공연

((YARIK)) 안데스산맥의 자연의 소리를 닮은 악기(산뽀니아, 껌나, 차랑고, 오까리나등)를 통해 전통음악 및 CONTURY POP을 연주하여 신선한 문화적 감동과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함을 주어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에콰도르 전통 민속 음악공연단



• 만찬 및 교류

• 2005 영상보고

• 문화공연

((뮤지컬과 함께 아카펠라 배우보기)) 아카펠라를 프로그램 톨로 활용한 팀파워 매니지먼트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보는듯한 퍼포먼스 아카펠라를 통하여 희노애락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공연



• 경품 추첨 및 기념품 배부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人員 또는 전문직업인.

•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 (6인이상)

•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41-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송년엽서 아해인

하늘에서
별뿔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 번 스쳐가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떠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어서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뜨겁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첫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항상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LMI & YOU

국일메카트로닉스(주) 임원 8명이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과정을 6월 20일에 시작하여 10월 24일 16주의 전과정을 마쳤습니다. 수료하는 자리에는 배우자들이 함께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진 구체적인 변화와 느낌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일메카트로닉스는 1989년 설립된 이래 국내외 전기/전자 및 자동차 관련업체에 다양한 정밀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측정장비 전문업체입니다. 얼마 전 수료하신 (주)성도GL 운영목 전무님의 소개로 인연을 갖게 된 국일메카트로닉스가 앞으로 큰 목표를 세우시고 이루셔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음 교육을 대할 때만 해도 새삼 이 나이에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 성공을 위해 생각을 바꾸고 태도와 습관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거부감마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 참가자들은 예외 없이 처음 가진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단원을 거듭해 가면서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의미를 찾아간다. "퍼스널리더십이 당신의 행동에 깊이와 의미를 더해주는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의도적으로 주도하는 것이라면 과연 지금의 나는 운명을 나 자신의 의도대로 주도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선명히 가졌는가? 가졌다면 그 목표에 대해 진지하고도 강렬한 열망을 불태웠던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차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그 동안 사고, 언어, 행동에서 습관으로 붙어 다니는 부정적인 면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들인지 알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보였다."는 한 참가자는 아내로부터 "이 교육이 참 좋은 것인가 봐. 당신이 많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과정 중에는 감사리스트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다. 다들 작성한 후 지금까지 한 두 가지의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 감사한 것들을 덮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해왔는지, 앞으로 아내와 자식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새삼 놀라워했다. 또한 한번도 제대로 그 감정을 표현해보지 않았음에 놀라기도 한다.

"지금 나의 태도나 말 그리고 사고의 습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가장인 나의 긍정적인 사고가 아이들의 인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자신들도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다. 나의 선명한 목표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그들이 하여금 회사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며 회사와 자기 자신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변화를 통한 확신을 보이기도 했다. 모두가 "5년 전에만 했더라면"은 어느 기에서나 나누는 공통적인 아쉬움이었다.

국일의 임원들이 LMI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향상된 퍼스널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명선언서에 쓰신 대로 조직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기원한다.



■ LMI 소식

1. 롯데그룹 중앙연수원 "효과적인 성과향상 과정(EPP)" 개강
 - 일시 : 11월 18일(금) 오후 4시
 - 대상 : 연수부 교육 운영팀 및 관리부 운영팀의 임원 11명
 - 지도 : 안효열 코치
2. 제68기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과정 개강
 - 일시 : 11월 26일(토) 오전 10시
 - 대상 : 각 기업의 CEO 10명
 - 장소 : 한국LMI 본사 강의실
3. 호텔롯데 퍼스널 리더십(EPL)과정 수료식
 - 일시 : 11월 24일(목) 오후 5시
 - 대상 : 호텔롯데의 임원 10명
4. 숙명여자대학교 EPL 1기 수료식
 - 일시 : 11월 16일(수) 조찬 오전 7시 30분
 - 대상 : 숙명여대 교수 5명
 - 장소 : 프라자호텔 토파즈 골드룸
5. 숙명여자대학교 EPL 2기 수료식
 - 일시 : 11월 16일(수) 오후 1시
 - 대상 : 숙명여대 리더십개발원 교수 및 직원
 - 장소 : 백주년기념관

■ 교육문의

한국엘엠아이(주) / T.2202-8700 / www.lmikorea.com

커뮤니케이션과 경청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커뮤니케이션은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것

지식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조직구조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수직적인 조직구조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인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평적인 조직구조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식공유가 원활할 때 창의성이 만발할 수 있는 까닭이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셀프 이미지가 확고하고 자발적 동기부여의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면 리더십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곰같은 며느리보다 여우같은 며느리가 더 낫다"는 우리 속담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두 사람 사이의 생각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 감정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감정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눈에 띄게 증가시킬 수 있다.

듣기가 말하기 보다 앞서야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가능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먼저 상대방

의 말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듣기가 말하기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다. 귀는 들이지만 입은 하나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열심히 듣다보면 상대방의 욕구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도움을 주는 방법도 생기게 된다.

또한 공감능력을 높이려면 자신의 가치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행동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단계에서 부딪힐 지도 모르는 어려움 그 자체가 타인의 가치관에 대해 깊은 배려와 이해를 하도록 해준다. 목표달성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목록화하기 시작할 때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위한 해결책은 개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려면 우리 자신과의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해진다. 즉 공감이야말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철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셈이다.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생각을 그의 관심사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을 조리 있게 말로 표현하려면 먼저 그 개념과 사고가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에는 경청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첫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찾아 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황하게 형설수설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중요한 대목을 반드시 되풀이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의 뒤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듣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 이기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듣고 있는 이야기로부터 가치 있는 점을 모두 얻어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를 하다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남의 말을 들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 생각이 옳지 않을 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다보면 상대방은 나중에 왜 자기 생각이 옳은 지를 설명할 지도 모른다.

넷째, 듣기를 실습해 본다.

듣는 데도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오락 프로그램처럼 듣기 쉬운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반면에 TV나 라디오의 토론이나 좌담회 프로그램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듣기에 부담이 되는 프로그램도 자주 듣다보면 쉬워지고 많은 성취와 보상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억하면서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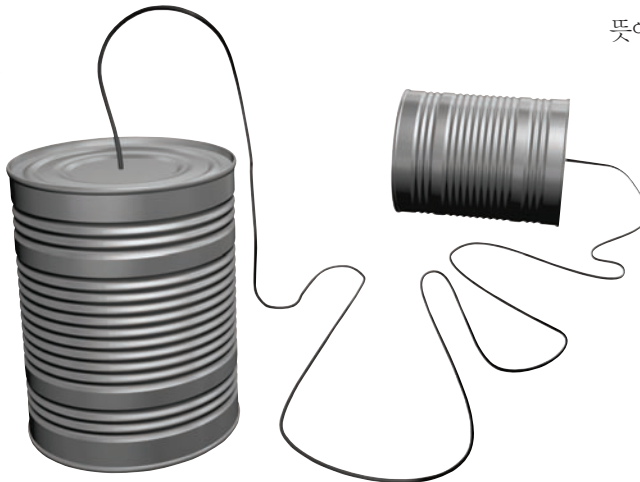
사람이 말하는 속도는 1분간에 100단어 내지 150단어라고 한다. 반면에 사람의 생각은 말하는 속도의 열 배나 빠르게 움직인다. 이러한

시차가 듣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 말하는 속도와 생각의 속도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건성으로 듣는다면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말할 때는 정신을 집중하여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청과 질문은 병행해야

경청을 하면서 병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질문이다. 질문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질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에게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논어에 불치하문(不恥下問)이란 말이 나온다.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孔文子라는 권력가가 있었다. 그는 살아 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존경을 받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그가 죽은 후 왕으로부터 받은 시호가 공문자이다. 시호에 글월 文자가 들어가면 훌륭한 사람을 뜻한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어떻게 해서 그 분이 과분한 시호를 받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공문자는 재주가 많고 민첩한데도 불구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文자가 들어간 시호를 받을 수 있었다" 공자는 공문자가 행실에 있어서 약점이 있었을 지라도 불치하문하는 자세를 가장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경청과 질문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양대 요소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헤어지고 나서 만나고 싶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 만남의 시간이 일방통행이 되거나 유익이 없다면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저 멀리 달아나고 말 것이다. 지속적인 만남은 공감과 경청과 질문에 있음을 유념하고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는 관계가 되도록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보자. **人間**





확실한 두 가지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지금 세상을 흔히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한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또 그 변화의 결과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빠른 변화 속에서도 알고 보면 확실한 것이 터러 있다. 적어도 두 가지 변화는 매우 확실해 보인다.

첫째, 앞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은 상당부분 아시아로 옮겨올 것으로 나는 본다. 많은 세월이 걸리겠지만 이 추세는 멈춰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시아의 경제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은 아니다. 아시아가 남북 아메리카나 유럽연합과 맞먹는 축을 형성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도 세계사의 진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경제에는 큰 활력이 없을 것 같고, 미국경제도 이대로 계속 활력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지나서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2차 산업은 군수산업을 빼놓고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군비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쌍둥이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초대국의 통화인 달러는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아시아는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다. 또 이 나라들에서 중산층이 대두됨에 따라, 아시아는 '세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여타의 세계에 대한 아시아의 의존도를 줄일 것이다. 또 앞으로 신지식의 창출에 있어서도 아시아는 구미와의 격차를 줄이고 언젠가는 구미를 따라잡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세계적 추세는 여성의 대두이다. 아주 최근의

미국 자료에 의한 대학진학률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이 44%, 여성이 56%라고 한다. 여성의 대학진출이 남성을 앞지르는 현상은 백인, 흑인, 히스파니아(Hispania)계, 동양계 할 것 없이 공통적이라 한다. 일대 문화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 혁명은 곧 세계로 퍼질 것이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보자. 옛날 농경사회에는 남성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남성의 힘이 아니고는 미개지(未開地)를 개간하고 경작하기는 어려웠다. 농경시대를 이어받은 공업 시대에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공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제복을 입고, 군대와 같이 통제와 규율 속에서 일해야 했다.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공업시대가 끝나고 서비스산업시대가 열렸다. 이 시대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못할 일이 많이 줄었고 반대로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생산뿐만이 아니다. 소비도 여성식으로 돼가고 있다. 소주도 도수가 약해졌고, 남자도 미장원에서 이발을 한다. 음식, 주거, 복식, 풍속, 가치관 등이 모두 여성화되고 있다. 여성의 대두에 따라 가정은 타격을 받게 됐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 코스트가 커졌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아기를 낳으라고 해도 효과는 적을 것이다. 남성은 편하게 됐다. 할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덜 호전적이다. 바둑 두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덜 'Brutal' 하지 않을까. 아무튼, 세계가 좀 더 평화로워지면 좋겠다. (人間)



LOTTE, in style

키스, 마치, 부케, 촛불, 서약, 축복
당신이 꿈꾸는 웨딩의 스타일이 여기에



롯데호텔 웨딩 상담실

- 롯데호텔 서울 02-317-7211-6
- 롯데호텔 월드 02-411-7450-3
- 롯데호텔 제주 064-731-4277-8
- 롯데호텔 울산 052-960-4210-2

홍길동의 고장

장성



文不如長城

당신의 삶의 여유와 가치를
돋보이게 합니다

장성
CHANGSUNG
미레로 세계로 장성



붉은 애기단풍과
파랗게 펼쳐진 비자림이
어우러진 백암산의 가을



편백나무의 피톤치드향으로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는
국내최대 인공조림지 축령산



50-60년대 마을경관을 배경으로
'태백산맥' 과 '내마음의 풍금' 을
촬영한 금곡 영화마을